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⑥ 삼매의 현상들(2)_여의주

# 몸 사라진 자리엔 거대한 여의주가…

사마타 수행 중에 만나게 되는 '강렬한 빛'. 그것은 집중의 강도에 따라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또 밀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깊어진다. 이때는 의식이 대상에 밀착해서 붙어있기에, (내 몸으로부터 의식이 분리되어) '내 몸이 없다'고 느낀다. 결국, 집중 대상만 남고 나는 없다.

### '펄럭' 사라지는 몸

사마타 수행 중에 몸이 없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집중점(선종에서는 율극봉 또는 금강권 등으로 일컫는다)으로 잡았던 가슴 차크라 자리가 뻥 뚫려 버린다. 몸통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주먹을 쥐고 팔을 그 구멍으로 넣었다 뺐다 관통해본다. 또 삼매에서 떨어져 나올 때, 순간 몸이 없어서 깜짝 놀라 몸을 이리저리 더듬어 보기도 한다. 이때(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었다가 의식이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몸이 튕겨 나뒹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집중하는 의식'은 대상을 강렬하게 거머쥐고 머물려 하지만, 실제로 몸이 있기에 자석처럼 의식이 제집(몸)으로 돌아와 들러붙는다. 장시간 동안 오롯이 추구했던 대상으로부터 (의식이) 갑작스레 분리되니, 순간 몸도 착각을 일으켜 분리되듯 튕겨 나와 뒤로 자빠지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 중, 필자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마치 종잇장 접히듯 몸의 중심이 반으로 접히면서 '펄럭'하더니 몸이 사라져버린 경우였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여의주가 나타났다! 지구보다도 크고 태양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여의주. 얇은 깃발처럼 한순간 펄럭이며 사라져버린 내 몸, 그것은 참으로 가볍고도 허망했다. 그리고 초대형 여의주만 남았다.

### 초대형 '여의주'의 출현

아! 모든 존재의 이면에는 여의주가 있구나! "우차여의주 정획무등등(遇此如意珠 定獲無等等: 이 여의주를 만난 이는 반드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천수경〉



초대형 여의주, 몸이 펄럭하며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여의주가 나타난다. ©강소연

의 구절에서 왜 '여의주'가 등장하는지 이해가 간다. 그러고 보니, 대표적 대승경전(〈화엄경〉 〈법화경〉 〈정토3부경〉 등)에는 여의주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많다. 영주(靈珠: 신령한 구슬)·보주(寶珠: 보배 구슬)·마니·주(珠)·마니주·여의주·여의보주·마니보주·무가주·명월마니주·반야영주·염주(念珠)·금강주 등,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너무 많아 모두 나열할 수가 없다. 무수한 보주 중에 으뜸이 이 있는데, 이를 마니보주라고 한다.

참으로 거대한 구슬이 있는 반면, 모래알만큼 작은 구슬도 있다. 갠지스강 모래알 같은 깨알 같은 구슬 입자들이 변화무쌍하게 파도친다. 내 몸 안팎의 허공에 가득한 구슬 입자들이 추는 군무(群舞)는 너무나 빨라서, 그것을 인식하려는 순간 도망가 버린다. 그 무상(無常)함을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

고려시대 나옹 스님(혜근, 1320-1376)이 지은 '완주가(翫珠歌)'는 일명 '영주가(靈珠歌)'로도 불리는데, 오묘한 구슬에 대한 총 60구의 찬송이다. "신령한 구슬은 지극히 영롱하여/ 본체는 항하사를 둘러싸 안팎이 비었도다/ 사람마다 푸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매만지며 가고 오니, 아무리 놀아도 끝이 없네/ 혹자는 '마니'라 하고 혹자는 '영주'라고 하니/ 이름과 모양은 비록 많으나, 본체는 하나이네/ 세계마다 티끌마다에 분명하여, 마치 밝은 달(명월)이 가을 강마다 가득한 듯하여라.(이하 생략)" '완주'는 '구슬이 희롱한다, 유리알이 유희한다'라는 뜻으로, 헤르만 헤세(독일 소설가)의 〈유리알 유희(1943년 간행,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를 떠올리게 한다.

### 卍자의 소용돌이

강렬한 빛과 초대형 여의주, 그 외에도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만나게 되는 현상들 중에 만자(卍字)의 소용돌이가 있다. 아랫배의 단전에 집중을 하니, 캄캄한 심연을 바탕으로 찬란한 빛의 바람개비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회전하기 시작한다. 빛줄기가 처음에는 사방(四方)이다가 팔방(八方) 또는 시방(十方)으로 분화한다. 빛의 바람개비는 처음에는 2차원의 평면에서 좌우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앞뒤 좌우로 돌아가 3차원의 공간을 채운다. 형성된 조건에 따라, 작게 돌기도 하고 우주의 블랙홀처럼 크게 돌기도 한다. 빠르게 돌기도 하고 천천히 돌기도 한다. 그 움직임과 형상이 변화무쌍하지만, '방사와 회전'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갖는다. 이 빛의 바람개비를 문자화한 것이 '만자'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⑥ 후시딘과 마데카솔

# "후시딘이 좋아요? 마데카솔이 좋아요?"

"딸랑"

약국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온다.

"후시딘이 좋아요? 마데카솔이 좋아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주 들어 본 이 질문은 약국에서 하는 다빈도 질문 순위를 매기자면 반드시 메달권에 있을 거라 예상되는 것들이다. 아마도 금메달이 아닐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 기간 미디어 광고 노출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후시딘과 마데카솔에 관련된 것이다.

오래된 떡밥과도 같은 질문이고 약사가 된 이후로 15년이 넘도록 똑같은 대답을 해왔지만 나는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약국에서 맞이하고야 말았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은가? 후시딘이 좋은지, 마데카솔이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도 시원하고 명쾌하게 답을 내려준 적이 없다. 답이 정해져 있었다면 응당 정답지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그럼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 중에 어느 부처님이 더 멋진가요? 와 같은 질문이라고 하면 더 쉽게 와닿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에 따라 가르침이 달라지듯, 후시딘과 마데카솔도 상황과 상처의 종류에 따라 좋은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분을 살펴보면 후시딘 연고는 [퓨시드산나트륨]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생제 연고이며, 이 성분은 포도구균이나 연쇄구균 따위의 세균 감염을 막아준다.

마데카솔케어 연고는 '센텔라정량추출물'과 '네오마이신황산염'이라는 두 가지를 유효성분으로 한 복합 항생제 연고이며, '센텔라정량추출물'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약효 물질로 피부 내 콜라겐의 정상적인 합성을 유도하여 흉터를 최소화하는 성분으로 약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네오마이신황산염'은 항생제 성분으로 상처의 2차 감염을 막아주고 피부 질환을 초기에 치료하는 성분이다.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해서 글을 읽기가 지겹고 힘들어졌음을 필자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각각의 항생제 성분이 어떤 균을 잘 잡아주고 하는 등의 이야기는 낯설고 관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난해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시딘과 마데카솔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가 아니라 "후시딘과 마데카솔은 각각 어떤 상황에 써야 하나요?" 가 맞다.

'후시딘'은 항생제 단일성분으로 고름이 생긴 피부, 고름으로 인한 딱지(농가진이라고도 한다.), 모낭염, 화상 등 출혈이 있을 정도로 깊고, 감염증이 우려되는 상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후시딘은 감염 우려 상처에**

**마데카솔은 긁힌 상처 등에**

'마데카솔케어연고'는 새살이 솔솔~이라는 광고 문구와 같이 센텔라정량추출물 성분이 흉터를 최소화하고, 상처 피부의 깨끗한 재생에 효과가 있으며, 네오마이신황산염이라는 항생제도 들어가 있다. 마데카솔은 작은 열상, 찰과상, 봉합된 상처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출혈이 있고 세균 감염이 우려되는 지저분한 상처에는 후시딘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벼운 상처, 긁힌 상처, 작은 상처 등에는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갑자기 상처가 생겼을 때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다. 더 잘 맞는 적응증이 있다는 것뿐이지, 일반적인 상처에는 두 가지 연고 모두 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급할 때는 후시딘 마데카솔을 구분하지 말고 먼저 보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상처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연고를 사용하고 싶다면? 정답은 바로 내 주변의 동네 약국을 활용해 보는 것이다.

상처의 관리에 사용되는 제품은 후시딘, 마데카솔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외용제가 있다.

항생제가 여러 종류 함유된 3중 복합 항생제 연고도 있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함께 들어간 연고도 있으며, 항생제가 없이 피부 염증과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연고 종류도 있다. 그리고 흔히 '메디폼'이라는 상품명으로 알고 있는 습윤밴드가 있다. 이 습윤밴드는 상처가 난 부위와 정도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류가 약국에 준비되어 있다.

습윤밴드는 아주 얇은 것부터 1, 2, 3, 5 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두께가 있는데 상처의 깊이나 넓이, 진물의 양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처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제각각 다르므로, 상처 관리법을 잘 안내받고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고 싶다면, 상처가 난 사람과 함께 약국을 찾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처 사진을 찍어서 약사님께 보여주고 상처가 발생한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다.

"딸랑"

또 약국 문이 열리고, 귀에 익숙한 질문이 들려온다.

"인사돌이 좋아요? 이가탄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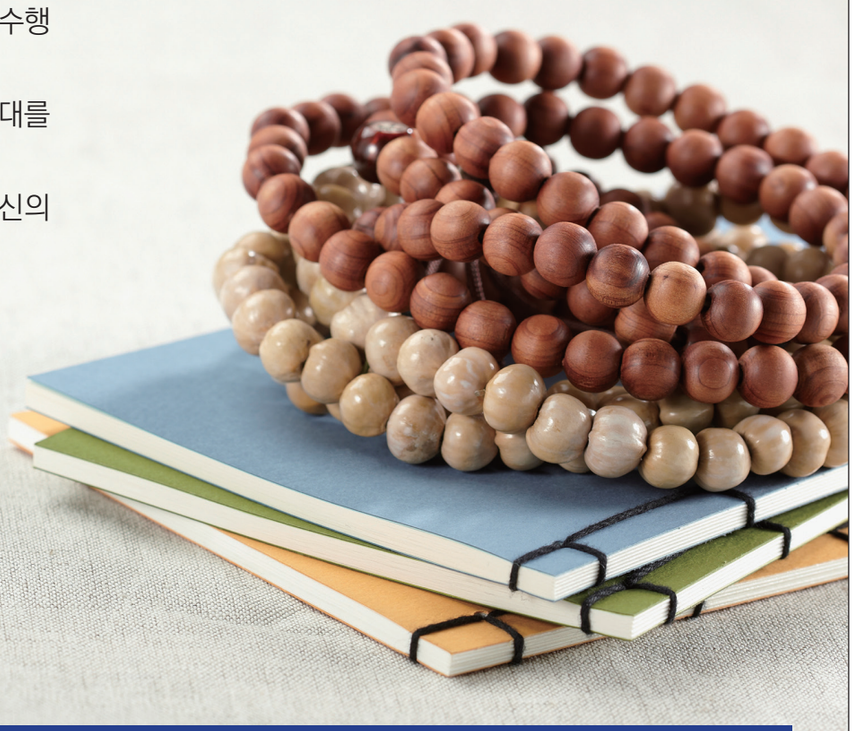
이젠 우리도 답을 알고 있다. "당신의 잇몸 상황에 따라 좋은 약이 다릅니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